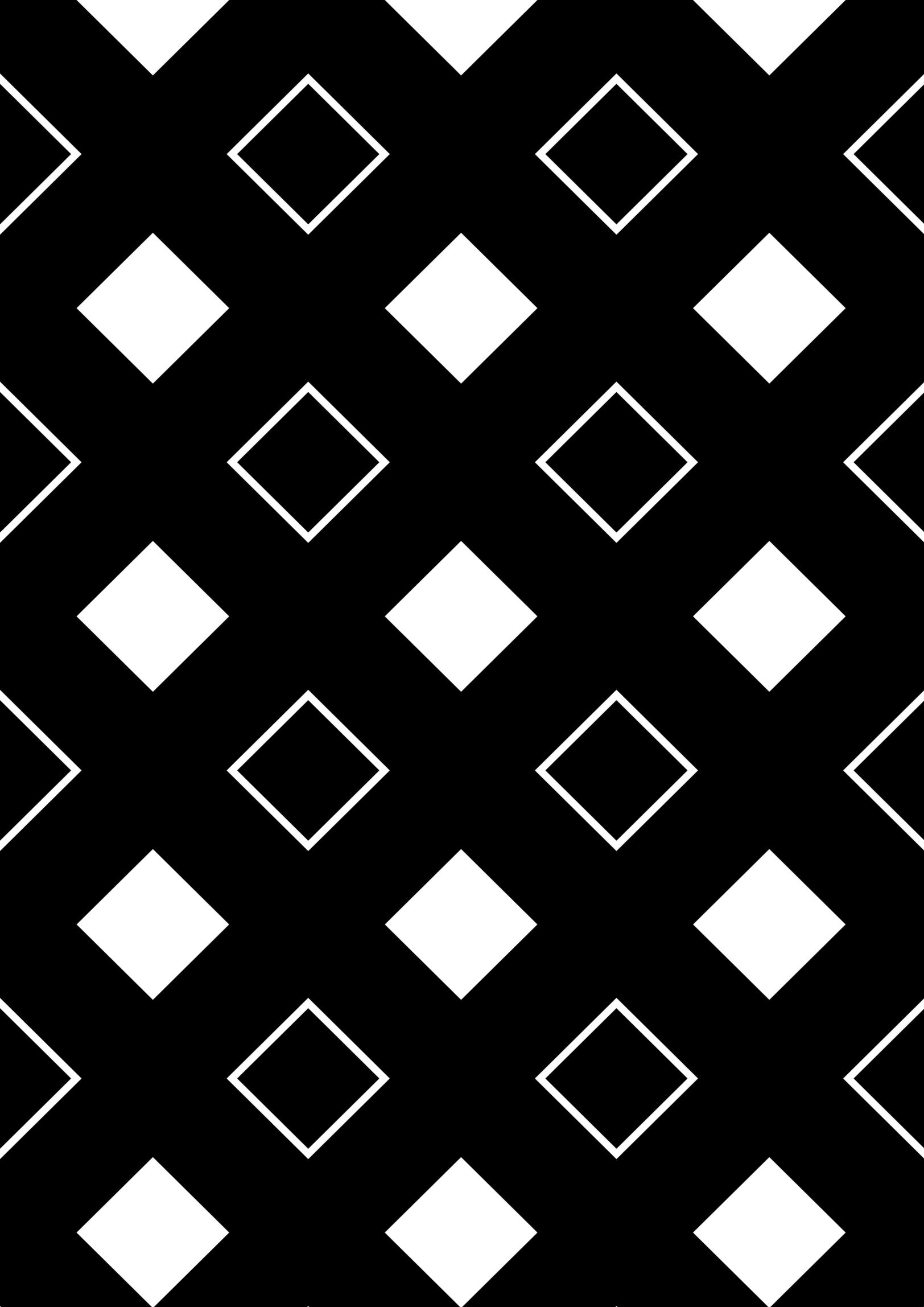




*Key*  
*Grain*



*by She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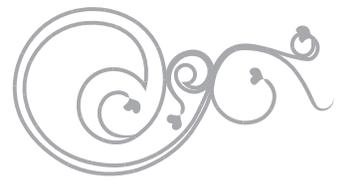


문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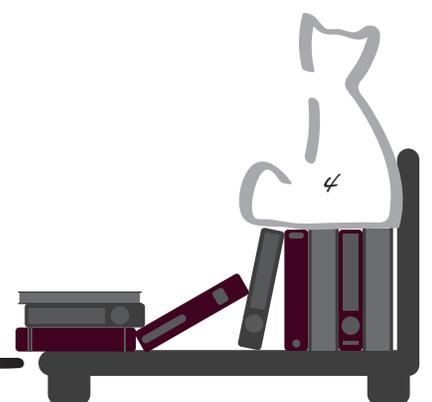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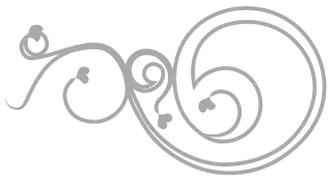
# Key-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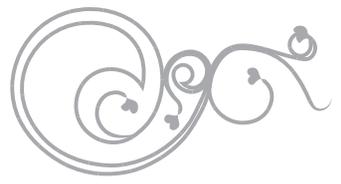
## 최근 7개년 수능 / 작년 6, 9평 어법 정답 & 오답

2020	동사준동사 (v or ving)	which	수일치	재귀대명사	접속사(as)
2020.9	동사준동사 (v or ving)	whose 소유형용사	to v(5형식)	재귀대명사	도치
2020.6	it to 가주진주	what 명사절	수일치(병렬)	보어 형용사 (appealing)	자동사
2019	대동사	관계사 that	or 병렬(능수)	대명사 (that, those)	전치사+ing
2018	관계대명사 (what/whether)	what 명사절 (doing 밑줄)	ing or pp	재귀대명사	stop to v or ing
2017	수일치 (the+형용사=복수)	what명사절	or 병렬(pp)	능수(used)	those ing
2016	동사준동사 (v or ving)	동격 that	pp 수식	대명사(수일치)	형부(부사)
2015	동사준동사 (v or ving)	관계사 where	형용사 후치수식	능수 (devastated)	수일치(has)
2014B	동사준동사 (v or ving)	관계대명사 (that)	pp수식	to v	형부(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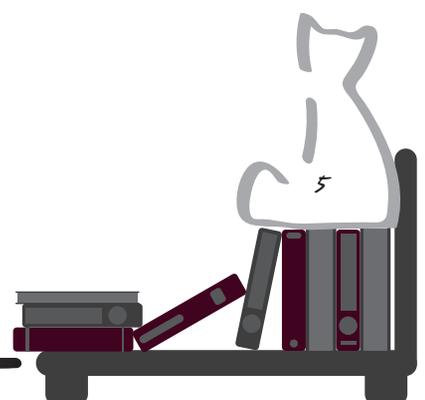




# Key-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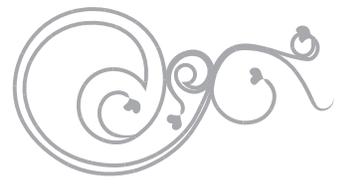


1. 자주 답이 되는 어법 사항은 있다. 따라서 ‘어떤 어법 사항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다.
2. 애매하고 지엽적인 거 고르면 idiot.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답이다(aka 동사, 관계사). 평가원은 여러분이 중요한 어법을 확실하게 썼으면 한다.
3. 전명구(전치사+명사)로 대표되는 ‘수식어구’를 어떻게 제거하고 문장 성분의 ‘골자’만 남기냐 하는 것이다.
4. 해석으로 ‘십중팔구’ 판별할 수 있도록 해놓는 추세. 하지만 ‘십중일이’는 분명히 있다.
5.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알아야한다.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관계대명사(which,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when, where, how, why) 및 전치사+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





# Key-gram



## S1. 동사 vs. 준동사(라고 쓰고 ing라고 읽는다)

1.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④ inhabited / inhabiting their world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20.수능)

2. But the Chinese saw the world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so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 ④ caused / causing them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ities of the entire “field,” that is, the context or environment as a whole. (16.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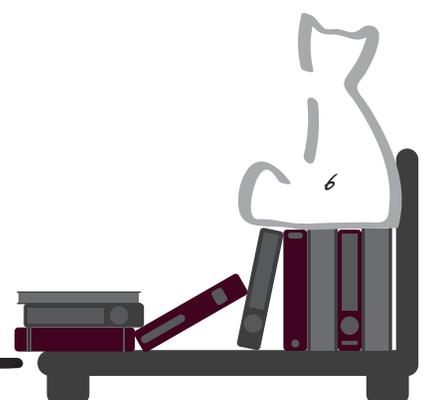
3. Furthermore,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③ meaning / means that pollution from excess feed and fish waste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s. (15.수능)

4.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② sending / sends out by-products called oxygen free radicals. (14B.수능)

5. But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that, so to say,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fully ④ actualizing / actualizes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20.9)

6. A special harmony ④ emerges / emerging that we missed before. (20.6)

7.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is no more real — and yet no less real — to them tha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② waits / waiting to be discovered in a child’s way, at a child’s pace.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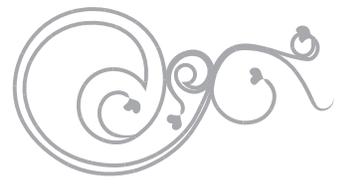


애슬픈  
애슬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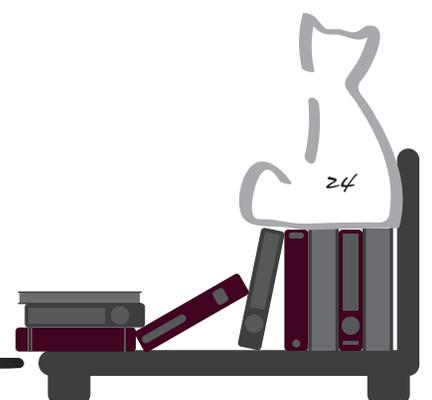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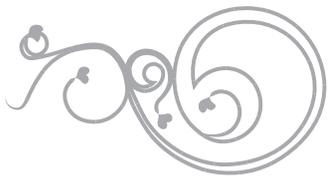
# Key-gram



## 최근 7개년 수능 / 작년 6, 9평 어법 정답 &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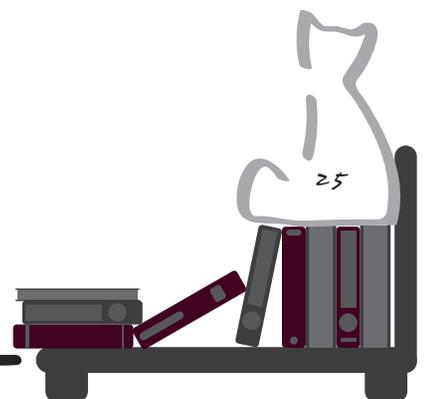
2020	동사준동사 (v or ving)	which	수일치	재귀대명사	접속사(as)
2020.9	동사준동사 (v or ving)	whose 소유형용사	to v(5형식)	재귀대명사	도치
2020.6	it to 가주진주	what 명사절	수일치(병렬)	보어 형용사 (appealing)	자동사
2019	대동사	관계사 that	or 병렬(능수)	대명사 (that, those)	전치사+ing
2018	관계대명사 (what/whether)	what 명사절 (doing 밑줄)	ing or pp	재귀대명사	stop to v or ing
2017	수일치 (the+형용사=복수)	what 명사절	or 병렬(pp)	능수(used)	those ing
2016	동사준동사 (v or ving)	동격 that	pp 수식	대명사(수일치)	형부(부사)
2015	동사준동사 (v or ving)	관계사 where	형용사 후치수식	능수 (devastated)	수일치(has
2014B	동사준동사 (v or ving)	관계대명사 (that)	pp수식	to v	형부(부사)





## Reference

1. S급은 평가원, 특히 수능에서 정답이 자주 되는 어법 사항.
2. A급은 평가원 어법 지문에서 정답으로는 낮은 확률로 되고(확률이다 확률), 오답으로는 자주 등장하는 어법 사항.
3. B급은 기타 어법사항. 어쩌다 평가원 오답요원으로 등장.
4. 형광펜 문장은 그 당시 어법 문제 지문의 정답 선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 S1. 동사 vs. 준동사(라고 쓰고 ing라고 읽는다)

★ 전명구로 대표되는 수식어구를 걷어낸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다. 접속사가 있다면 그 뒤로 ‘다시 시작’이다. 결국 문장의 동사냐 ing냐로 봐도 무방하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When considered in this light,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with the nonhuman creatures] [④ **inhabiting** their world] becomes profoundly meaningful. (20.수능)

해석)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될 때, / 초기 인간의 시각적 몰입은 / 인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된다.

해설) 16수능에서 동사준동사 선지가 3연속 답이 되기를 멈추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오랜만에 20수능에서 답으로 선정되었다. ‘무난히’ 나왔다. 역시나 어법은 중요한 것만, 꼬지 않을 테니 확실히 알자는 평가원의 의지가 보인다. 이 문제는 inhabited를 보자마자 ‘동사인가?’ 의심하고, 사실 눈을 옆으로 몇 센티미터만 옮겨서 becomes를 보는 순간 ‘답이네’ 할 수 있는 문제다.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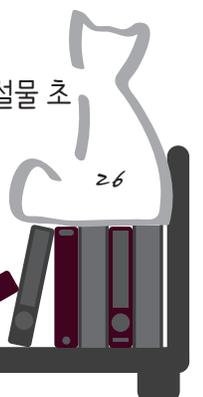
2. But the Chinese saw the world as consisting of continuously interacting substances, so their attempts [to understand it] ④ **caused** them [to be oriented] [toward the complexities of the entire “field,”] [that is, the context or environment as a whole.] (16.수능)

해석) 하지만 중국인들은 세상을 보았다 /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물질들로 구성된 것으로, / 따라서 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 이들을 향하게 했다 / 그 전체 “분야”의 복잡성으로, / 즉, 전체적인 맥락 혹은 환경을 말한다.

해설) 콤마 뒤에 so라는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뒤만 봐야 한다. Their attempts가 주어이고 to understand it은 이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그 뒤에서도 수식어구와 전명구를 다 제거하면 so 뒤 새로운 문장에 동사가 없다. 따라서 ‘caused’가 되어야 한다.

3. Furthermore,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fish pens were initially constructed] ③ **means** that pollution from excess feed and fish waste created huge barren underwater deserts. (15.수능)

해석) 더욱이,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과 / 불충분한 조치는 / 양식장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 의미한다 / 사료 및 배설물 초과량에서 발생한 오염이 / 거대하고 척박한 수중 사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 Key-gram



해설) 문장의 정확한 주어는 ‘a general lack’이다. 그 뒤 전명구와 수식어구를 다 없애고 나면, meaning 뒤의 that절은 ‘또 다른 절’의 시작이므로 별개로 봤을 때 해당 문장 주어의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means’가 되어야 한다.

4.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② **sends** out by-products [called oxygen free radicals.] (14B.수능)

해석) 산소의 연소는 /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활동하게 해주는 / 부산물을 내보낸다 /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해설) 14B의 악명에 비해 어법은 아주 무난하였다. The combustion의 문장의 주어이고, 뒤 전명구와 수식어구를 없애면 동사가 없다. 따라서 ‘sends’가 되어야 한다.

5. But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that, [so to say],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fully ④ **actualizes**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20.9)

해석) 하지만 알고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느낌을 주지 않는다, / “우월감을, / 말하자면, 보이지 않게 비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 폭로의 순간에만 그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해설) 관계대명사 that 뒤만 본다. superiority를 꾸며주는 동사가 actualize임을 볼 수 있는가. 이를 보려면 콤마콤마 친구들을 다 없애버릴 줄 알아야 한다!

6. A special harmony ④ **emerges** / emerging that we missed before. (20.6)

해석) 우리가 전에 놓친 특별한 화음이 등장한다.

해설) 사실 동사 준동사라기보다, ‘emerge’가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자동사라는 걸 묻고 싶은 문제. 따라서 뒤의 that절이 emerge의 목적어가 아니라, harmony를 떨어져서 수식하는 것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7.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is no more real (— and yet no less real —) [to them] [tha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② **waiting** to be discovered in a child’s way, at a child’s pace. (18.9)

